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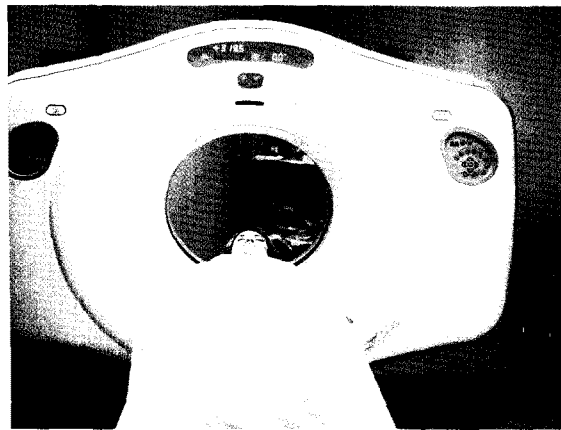
선진국들의 건강검진 시스템 엿보기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국가검진의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건강검진프로그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어떨까. 일본과 미국,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외의 건강검진 현실을 살펴본다. 에디터 김은섭 자료제공 국민건강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체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현재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의료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의료비 증가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의 의료비(총 의료비의 약 30%)를 억제하기 위해 생활습관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생활습관병 예방 대책의 하나로서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를 도입하였다.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란 대사증후군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 생활습관병 발생의 위험이 있고, 생활습관 개선에 의한 생활습관병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건강검진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조합의 의료보험자가 40세 이상 74세까지의 성인 5천만 명



을 대상으로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서비스는 문진, 진찰, 생화학검사 외에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과 약물복용 격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에 조합별로 자율 실시되던 건강검진을 표준 검진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서비스 지침 개발 및 제공 주기, 제공 인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표준화된 보건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질병통제센터의 국가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활용, 40~64세 사이의 보험미가입자, 소수인종 등의 저소득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Wise Women Project' 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건강검진과는 대상자 선정 및 검진항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질병의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질병군 및 고위험군의 진료 의뢰와 생활습관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다. 조기검진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에 근거하여 질병군 및 고위험군의 진료 의뢰와 선별검사를 통해 이상자, 고위험군, 정상인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즉 질병통제센터의 조기검진 권고에 따라, 검진 결과에서 이상자로 구분된 여성들에게는 국가지침에 근거하여 적절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진료를 의뢰하도록 한다. 그리고 고위험군에게는 생활습관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간 선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 프로그램 진행방향을 재점검하고, 평가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선 사항을 평가한다.

호주는 현재로서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없지만, 1년마다 기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7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포괄적인 건강상태 평가 등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아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는 매년, 15세에서 54세까지는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원주민에 대한 검진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80%가 기회검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는 건강증진관리간호사 등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의 사후관리 주체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의 생활습관 관련전문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생활양식 중재센터와 민간회사 중심의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암조기 검진사업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사보험을 통해 검진을 받을 기회가 많다. 물론 양적 성장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적 검진프로그램이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보험자별로 일부 특정 계층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포괄적 건강검진 시스템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